

제1장 유교사상의 본질

A. 유교사상의 본질과 송대의 도학사상

1. 유교의 용어와 중심인물

- (1) 유교(儒敎:孔敎,孔子敎), 유학(儒學:孔學,聖學,斯學,斯文), 유도(儒道:儒術), 유가(儒家), 유림(儒林:儒者,儒生,士林), 선진유학(先秦儒學), 한대(漢代) · 당대(唐代) · 송대(宋代) · 명대(明代)의 유학, 신유학(新儒學), 정주학(程朱學), 주자학(朱子學), 도학(道學), 의리학(義理學), 성리학(性理學), 이학(理學), 심학(心學), 예학(禮學), 경학(經學), 실학(實學)
- (2) 중심인물
 - ① 공자(孔子, BC.551-BC.479)와 맹자(孟子, BC.372-BC.289경)
 - ② 정자(程子,程顥:1032-1085, 程頤:1033-1107)와 주자(朱子, 1130-1200)

2. 유교의 경전(經典)

- (1) 오경(五經); 孔子에 의하여 정리된 유교의 고대 경전
 - ①시경(詩經) ②서경(書經) ③역경(易經) ④예기(禮記) ⑤춘추(春秋)
 - *십삼경(十三經:詩經,書經,易經,禮記,儀禮,周禮,春秋左傳,春秋穀梁傳,春秋公羊傳,孝經,論語,孟子,爾雅)
- (2) 사서(四書); 송대의 정자와 주자 등에 의하여 표장된 유교의 경전
 - ①논어(論語) ②맹자(孟子) ③대학(大學) ④중용(中庸)

3. 공자사상의 연원

- (1) 공자의 선현 존숭과 사상의 집대성
 - 예) 「子曰述而不作,信而好古」(論語,述而1)
 - 예) 「仲尼祖述堯舜,憲章文武」(中庸,第30章)
- (2) 유교의 도통(道統)
 - ①요(堯: 2333-2233 B.C.), 순(舜: 2233-2183 B.C.),
 - ②하대(夏代: 2183-1751 B.C.)의 우(禹),
 - ③은대(殷代: 1751-1112 B.C.)의 탕(湯),
 - ④주대(周代: 1112-250 B.C.)의 문(文), 무(武),周公(周公)
- (3) 도통의 내용: 중용(中庸), 심법(心法), 도심(道心)
 - 예) 「堯曰咨爾舜,天之曆數在爾躬,允執厥中」(論語,堯曰1)
 - 예)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書經,大禹謨)

4. 유교사상의 본질

- (1) 인간중심; 인간 관계 속에서 인간을 위한 사상임
(은둔주의(隱遁主義), 출가주의(出家主義)와 다름)
예) 「人能弘道,非道弘人」(論語,衛靈公)
예) 「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論語,微子)
예) 「道不遠人」(中庸,13章)
예) 「季路問事鬼,子曰未能事人,焉能事鬼」(論語,先進)
- (2) 현실중심; 긍정적 자세로 현실 속에서 가치를 실현
(부정주의(否定主義), 초월주의(超越主義)와 다름)
예) 「季路…敢問死,曰未知生,焉知死」(論語,先進)
예) 「下學而上達」(論語,憲問)
- (3) 과정중심; 이상을 향한 노력과 과정에 의미를 둠
(결과주의(結果主義)와 다름)
예) 「誠之者,人道也」(中庸 20장)
예) 「不貴無過,貴改過」(周易折中)
예) 「日日新,又日新」(大學)
예) 「是知其不可而爲之者與」(論語,憲問)
- (4) 실천중심; 이론적인 분석보다는 가까운 데에서부터 실천을 강조함
(관념주의(觀念主義)와 다름)
예) 「行有餘力,則以學文」(論語,學而)
예) 「先行其言 而後從之」(論語,爲政)
예) 「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孟子,盡心上)
- (5) 자기실현; 진실된 삶의 추구는 순수한 인간존재의 구현임
(祈福主義, 利己主義와 다름)
예) 「古之學者,爲己,今之學者,爲人」(論語,憲問)
예) 「君子深造之以道,欲其自得之也」(孟子,離婁下)
예) 「反求諸其身」(中庸,14章)
예) 「不怨天,不尤人」(論語,憲問)
예) 「求仁而得仁,又何怨」(論語,述而)

5. 유교사상의 구체적 내용

- (1) 기본구조; 개인적 인격의 수양과 사회적 인간관계의 완성
(知命行義, 天人合一, 修己治人, 忠恕, 中庸, 聖人)
예) 「天生德於予」(論語,述而)
예) 「不知命,無以爲君子也」(論語,堯曰)
예) 「行義以達其道」(論語,季氏)
예) 「大人者與天地合其德」(周易,繫辭傳)

- 예) 「修己以安人」(論語,憲問)
 예) 「夫子之道,忠恕而已矣」(論語,里仁)
 예) 「君子之中庸,君子而時中」(中庸2章)
 예) 「有始有卒者,其惟聖人乎」(論語,子張)

(2) 윤리사상

① 개인윤리; 성선설(性善說), 성(誠,眞實無妄), 인(仁,全德), 성학(聖學)

- 예)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論語,雍也)
 예) 仁(惻隱之心),義(羞惡之心),禮(辭讓之心),智(是非之心)
 예) 「君子義以爲質,禮以行之」(論語,衛靈公)
 예) 「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論語,里仁)
 예) 「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論語,顏淵)
 예) 「博學於文,約之以禮」(論語,顏淵)
 예) 「知之爲知之,不知爲不知,是知也」(論語,爲政)
 예) 「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是吾憂也」(論語,述而)

② 악의 원인; 기질(氣質), 물욕(物慾), 무지(無知)

③ 수양 방법; 기질변화(氣質變化), 절욕(節欲), 궁리(窮理)

- 예) 「誠於中,形於外」(大學,傳6章)
 예) 存心養性,戒愼恐懼,愼獨,誠意,正心
 예) 敬(純粹收斂,惺惺法,主一無適,嚴肅端正,聖學終始,持敬)

④ 사회윤리; 가족윤리, 오륜사상(五倫思想), 쌍무적(雙務的), 자발적(自發的)

- 예) 「父慈子孝,兄良弟弟,夫義婦德,長惠幼順,君仁臣忠」(禮記,禮運篇)
 예) 「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論語,學而)
 예) 「以直報怨,以德報德」(論語,憲問學而)
 예) 「絜矩之道」(大學)

(3) 정치사상

① 정명(正名)사상;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함

- 예) 「足食,足兵,民信之」(論語,顏淵)
 예) 「君君臣臣父父子子」(論語,顏淵)

② 덕치(德治)주의; 도덕과 예치를 바탕으로 다스림

- 예) 「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爲政)

③ 민본(民本)주의; 민중을 근본으로 한 정치, 민권(民權)과 인권(人權)

- 예) 「民惟邦本」(書經,五子之歌)

④ 대동(大同)사회; 인간의 신뢰와 화목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공동체사회

- 예)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脩睦...是謂大同」(禮記,禮運篇)

(4) 경제사상

① 향산(恒産)주의;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예) 「富之→教之」(論語,子路)

② 균분(均分)주의; 국민소득의 분배를 고르게 해야 함.

예) 「不患寡,而患不均」(論語,季氏)

③ 안정(安定)주의; 국민의 정신적 평안을 지향.

예) 「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論語,述而)

예) 「不患貧,而患不安」(論語,季氏)

6. 송대의 성리학파 도학사상(道學思想)

(1) 송대 유학의 대표적 인물과 중요저서

① 주돈이(周敦頤,濂溪;1017-1073): 『태극도설(太極圖說)』, 『통서(通書)』

② 소옹(邵雍,康節;1011-1077): 『황극경세(皇極經世)』

③ 장재(張載,橫渠;1020-1077): 『서명(西銘)』, 『정몽정蒙』

④ 정호(程顥,明道;1032-1085): 『식인편(識仁篇)』, 『정성서(定性書)』

⑤ 정이(程頤,伊川;1033-1107): 『역전(易傳)』, 『이정전서(二程全書)』

⑥ 주희(朱熹,晦庵;1130-1200):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심경부주(心經附註)』 등

(2) 송대 성리학의 내용

① 태극론(太極論): 인간을 포함한 우주 존재의 본질 및 생성에 관한 내용
(우주론, 본체론, 형이상학)

예) 「易有太極,是生兩儀」(周易,繫辭傳 上,第11章)

예) 「無極而太極,太極動而生陽,靜而生陰」(周敦頤,太極圖說)

예) 「太極只是一箇理字」, 「實理, 生理, 生生之理」(朱子語類,卷94)

② 이기론(理氣論): 이(理)와 기(氣)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설명한 내용
이(理)는 자연계 사물의 존재법칙(所以然)이며 인간의 도덕적 삶의 원리(所當然), 기(氣)는 우주의 존재자(所然)이며 현상(實然)임. 이기론에서는 이와 기의 개념(概念), 관계(關係), 동정(動靜), 선악(善惡) 등이 논의됨
예) 「天生蒸民,有物有則」(詩經)

예) 「蓋氣則能凝結造作,理却無情意無計度無造作」(朱子語類,卷1)

예) 「所謂理與氣…但在物上看則,二物渾渾不可分開,所謂理與氣,此決是二物」
(朱子大全,卷46)

예) 「理有動靜,故氣有動靜」(朱子大全,卷56)

예) 「理純善, 氣兼善惡」(朱子大全)

③ 인성론(人性論): 인간의 내면적 본성에 관하여 분석한 내용.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육체를 주재하는 것은 정신인 마음(心)에 있음. 심(心)은 성(性)과 정(情)으로 분석할 수 있음.

예) 「天命之謂性」(中庸)

예) 「心統性情」(張橫渠)

예) 「人心道心之異者,則以其或生於形氣之私,或原於性命之正」(中庸序,朱子)

예) 「性即理也」(二程全書)

예)「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朱子語類,卷53)

예)「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二程全書)

④ 인식론(認識論): 인간의 앎과 지식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지식론)
유학에서의 인식론은 『대학(大學)』의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임.

격물(格物)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극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며,
치지(致知)는 ‘내 마음의 본질을 통하여 그 아는 바를 다하는 것임.

예)「格物的物者,即是事者,皆從心上說,意之所在便是物,致至也,致知云者,非若
後儒所謂充廣其知識之謂也,致吾心之良知焉耳」(大學問)

(3) 도학사상: 성리학(性理學)+의리학(義理學)+종교성(殉道精神)

성리학 기반의 의리의 실천에 궁극적 목적 있음. 『송사(宋史)』의 「도학전
(道學傳)」(4권)에 도학자들이 수록되어 있음.

예)「吾道一以貫之」(論語, 里仁)

예)「朝聞道,夕死可矣」(論語, 里仁)

예)「殺身成仁」(論語)

예)「舍生取義」(孟子)

예)「道學,本在人倫之內,故於人倫盡其理,則是乃道學也」(『栗谷全書』,語錄上)

제2장 맹자사상의 이해

1. 孟子(B.C.372-B.C.289)의 생애

성은 맹(孟),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輿). 추(鄒:현제 山東省 鄒城市)나라 출신. 노(魯)나라 맹손씨(孟孫氏)의 후손. 자사(子思)의 문인에게 수학. 맹모삼천(孟母三遷). 단기지계(斷機之戒, 또는 斷機教子). 제(齊)나라와 양(梁)나라 등을 주유. 1083년(宋,神宗) 추국공(鄒國公)으로 추증. 1084년 문묘배향. 아성공(亞聖公)으로 사성(四聖)중 한 사람

2. 『맹자』의 저자, 편수, 주석

- ① 저자: 맹자(朱子) 맹자와 문인(『史記』 「孟荀列傳」), 문인(韓愈)
- ② 편수: 7편(상하 총14편, 『사기』) (본래 11편(내편7+외편4)이라는 설: 趙岐)
- ③ 주석: 조기(趙岐: 後漢, 古註), 주자(朱子: 宋, 新註)

3. 맹자사상의 특징

- ① 공자사상보완: 天德→正命, 性相近→性善, 仁→仁義, 志→養志, 浩然之氣
忠恕→仁政, 正名→革命
예) 「乃所願則學孔子也」(孟子, 公孫丑上2)
- ② 기본사상: ①人道の 구현(聖人, 君子, 大人, 士) ②仁(親親, 孝)과 義(從兄, 悌)
예) 「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以承三聖者」(孟子, 滕文公下9)
예) 「聖人, 人倫之至也…二者皆法堯舜而已矣」(孟子, 離婁上2)
예) 「何謂尚志, 曰仁義而已矣…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孟子, 盡心上33)
- ③ 종교성: 천(天)과 명(命), 사천(事天)과 정명(正命)
예) 「盡其心者…知其性, 則知天矣,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孟子, 盡心上1)
예) 「殀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孟子, 盡心上1)
예) 「盡其道而死者, 正命也」(孟子, 盡心上2)
- ④ 철학사상: 본성의 자각, 천(天)과 명(命), 성선설(性善說), 양지(良知), 양능(良能)
예) 「孟子道性善, 言必稱堯舜」(孟子, 滕文公上1)
예)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孟子, 盡心上15)
- ⑤ 윤리사상: 의리사상(義理思想), 선비(士)정신, 호연지기(浩然之氣), 직(直), 양지(養志)와 양기(養氣), 지언(知言)과 집의(集義), 존심양성(存心養性), 구방심(求放心),自得(自得), 사생취의(舍生取義),
예) 「萬物皆備於我矣」(孟子, 盡心上4)

- 예) 「不忍人之心」(孟子,公孫丑上6)
- 예) 「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孟子,盡心上45)
- 예) 「以直養而無害,則塞于天地之間」(孟子,公孫丑上2)
- 예) 「心勿忘,勿助長也」(孟子,公孫丑上2)
- 예) 「持其志,無暴其氣」(孟子,公孫丑上2)
- 예) 「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矣」(孟子,告子上11)
- 예) 「君子深造之以道,欲其自得之也」(孟子,離婁下14)
- 예) 「舍生而取義者也」(孟子,告子上10)
- ⑥ 정치사상: 민본사상(民本思想), 여민동락(與民同樂), 왕도사상(王道思想).
인정(仁政), 복지정책, 혁명사상(革命思想)
- 예) 「民惟邦本」(書經,五子之歌)
- 예) 「民爲貴,社稷次之,君爲輕」(孟子,盡心下14)
- 예) 「與百姓同樂,則王矣」(孟子,梁惠王下1)
- 예) 「養生喪死無憾,王道之始也」(孟子,梁惠王上3)
- 예) 「行仁政而王,莫之能禦也」(孟子,公孫丑上1)
- 예) 「文王發政施仁,必先斯四者(鰥寡獨孤)」(孟子,梁惠王下1)
- 예) 「賊仁者,謂之賊,賊義者,謂之殘,殘賊之人,謂之一夫」(孟子,梁惠王下8)
- 예) 「君有大過則諫,反覆之而不聽則易位」(孟子,萬章下9)
- ⑦ 경제사상: 항산(恒産), 정전제(井田制), 철법(徹法: 貢法+助法), 절용(節用)
- 예) 「若民則無恒産,因無恒心」(孟子,梁惠王上)
- 예) 「夫仁政,必自經界始,經界不正,非地不均,穀祿不平」(孟子,滕文公上3)
- 예) 「夏后氏五十而貢,殷人七十而助,周人百畝而徹,其實皆什一也」(滕文公上3)
- 예) 「食之以時,用之以禮,財不可勝用也」(孟子,盡心上23)
- ⑧ 사회사상: 개인과 사회의 조화, 양주(楊朱)와 묵자(墨翟) 비판
- 예) 「楊子取爲我,拔一毛而利天下,不爲也」(孟子,盡心上26)
- 예) 「墨子兼愛,摩頂放踵,利天下,爲之」(孟子,盡心上26)
- 예) 「子莫執中,執中爲近之,執中無權,猶執一也」(孟子,盡心上26)
- 예) 「楊氏爲我,是無君也,墨氏兼愛,是無父也」(孟子,滕文公下9)
- ⑨ 자연관: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인간의 가치구현을 위한 자연
- 예) 「順天者存,逆天者亡」(孟子,離婁上7)
- 예) 「致中和,天地位焉,萬物育焉」(中庸 1章)

4. 맹자의 표장

- ① 한(漢) 문제(文帝:179-157B.C.): 사박사(四博士:논어,효경,이아,맹자)로 높임
- ② 송(宋) 신종(神宗:1068-1085): 『맹자』를 경(經)에 올림

- ③ 원(元) 인종(仁宗): 1313년 과거실시 때 주자의 주석을 모범답안으로 인정
- ④ 명(明) 황종희(黃宗羲:1610-1695):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에서 맹자존숭

5. 맹자의 폄하

- ① 송(宋) 이구(李觀)의 「상어(常語)」, 사마광(司馬光) 「의맹(疑孟)」에서 비판
- ② 명(明) 태조(太祖:1368-1398) 문묘배향중지, 『맹자절문(孟子節文)』(85조삭제)

6. 참고자료

- ① 『맹자혹문(孟子或問)』(朱子)
- ② 『맹자정의(孟子正義)』(淸,焦循)
- ③ 『맹자자의소증(孟子字義疏證)』(戴震)
- ④ 『맹자질서(孟子疾書)』(李漢)
- ⑤ 『맹자요의(孟子要義)』(丁若鏞)
- ⑥ 『경서(經書)』(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출판부, 2008)
- ⑦ 『맹자집주(孟子集註)』(성백효 번역, 전통문화연구회, 1991)
- ⑧ 『맹자(孟子)』(유교문화연구소 옮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제3장 맹자의 종교성과 천명설(天命說)

A. 종교의 개념과 공자의 종교성

1. 종교의 개념

- (1) 협의의 종교: 교주(敎主)로서의 신(神), 교단(敎團)으로서의 신도(信徒), 교의(敎義)로서의 경전(經典) 등을 갖추고 있음. 즉 교리적 측면의 내세(來世)지향, 죄악의식, 구제(救濟)의식 등과 형식적 측면의 조직이나 특수한 의식 등이 있음.

(예) 佛 · 法 · 僧

(예) 입단시의 세례의식, 출가시의 계를 받음

- (2) 광의의 종교: 신념과 진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는 초월정신과 순도(殉道)의식 등이 있음

- (3) 유교(儒敎): 교화(敎化)의 교와 종교(宗敎)의 교를 포함

2. 천(天)의 개념과 명(命)과 성(性)의 관계

- (1) 천(天)의 개념: ①초월적 천(예: 天命, 上天, 皇天) ②자연적 천(예: 天地, 蒼天, 昊天) ③이법(理法)적 천(예: 天理, 天道) 등이 있음.

예) 天生蒸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詩經, 蒸民篇)

예) 天降下民, 作之君, 作之師 (書經, 泰誓篇)

- (2) 명(命)과 성(性)의 관계: 천명(天命)과 인성(人性), 특수성(命)과 보편성(性)

예)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敎 (中庸1)

예) 性命之學

3. 공자의 종교성

- (1) 공자사상의 특성: 인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종교성이 기반되어 있음.

예) 『未能事人, 焉能事鬼, …未知生, 焉知死,』 (論語, 先進11)

- (2) 天 · 命 · 神에 대한 언급 자체

예) 『子貢曰,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論語, 公冶長12)

예) 『子罕言利與命與仁,』 (論語, 子罕1)

예) 『子不語怪力亂神,』 (論語, 述而20)

- (3) 天 · 命 · 神에 대한 강한 신념

예) 『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論語, 子罕 5)

예) 『顏淵死, 子曰, 噫, 天喪予,』 (論語, 先進8)

- 예) 『由之行詐也,無臣而爲有臣,吾誰欺,欺天乎(論語,子罕 11)』
 예) 『予所否者,天厭之,天厭之』(論語,雍也26)
 예) 『獲罪於天,無所禱也』(論語,八佾13)
 예) 『五十而知天命』(論語,爲政4)
 예) 『予欲無言…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論語,陽貨19)
 예) 『子曰,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論語,憲問38)
 예) 『子曰,不知命,無以爲君子也』(論語,堯曰3)
 예) 『君子有三畏,畏天命,畏大人,畏聖人之言』(論語,季氏8)
 예) 『志士仁人,無求生而害人,有殺身而成仁』(論語,衛靈公8)
- (4) 생활 속의 기도와 제사(祭祀)
- 예) 『子曰,丘之禱久矣』(論語,述而34)
 예) 『敬鬼神而遠之,可謂知矣』(論語,雍也20)
 예) 『子曰,禹 吾無間然矣,非飲食,而致孝乎鬼神』(論語,泰伯21)
 예) 『雖疏食菜羹,瓜(必)祭,必齋如也』(論語,鄉黨8)
 예) 『祭如在,祭神如神在』(論語,八佾12)
 예) 『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論語,爲政5)
 예) 『子張曰,祭思敬』(論語,子張1)
- (5) 천인관계: 초월(超越)과 내재(內在)의 회응(回應) 관계(天人合一)
- 예) 『天生德於予,桓魋其如予何』(論語,論語,述而22)
 예) 『下學而上達』 『上達天德』(論語,論語,憲問37)

B. 『맹자(孟子)』 선독(選讀)

<堯舜의 禪讓과 天>

○萬章이 曰 堯以天下與舜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曰 否라 天子不能以天下與人이니라 然則舜有天下也 孰與之잇고 曰 天이 與之시니라 天이 與之者 是 諄諄然命之乎잇가 曰 否라 天이 不言이라 以行與事로 示之而矣시니라 曰 以行與事로 示之者 是 如何잇고 曰 天子能薦人於天이 언정 不能使天으로 與之天下며 諸侯能薦人於天子언정 不能使天子로 與之諸侯며 大夫能薦人於諸侯언정 不能使諸侯로 與之大夫니 昔者에 堯薦舜於天而天이 受之하시고 暴之於民而民受之하니 故로 曰 天이 不言이라 以行與事로 示之而已矣라하노라 曰 敢問薦之於天而天이 受之하시고 暴之於民而民이 受之는 如何잇고 曰 使之主祭而百神이 享之하니 是는 天이 受之요 使之主事而事治하여 百姓이 安之하니 是는 民이 受之也라 天이 與之하며 人이 與之라 故로 曰 天子不能以天下與人이라하노라 舜이 相堯二十有八載하시니 非人之所能爲也요 天也라 堯崩

커시늘 三年之喪을 畢하고 舜이 避堯之子於南河之南이어서늘 天下諸侯朝覲者 不之堯之子而之舜하며 訟獄者 不之堯之子而之舜하며 謳歌者 不謳歌堯之子而謳歌舜하니 故로 曰 天也라 夫然後에 之中國하사 踐天子位焉하시니 而居舜之宮하여 逼堯之子면 是는 篡也라 非天與也니라 太誓曰 天視自我民視하며 天聽自我民聽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萬章上5)

<禹의 繼承과 天>

○萬章問曰 人이 有言하대 至於禹而德衰하여 不傳於賢而傳於子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曰 否라 不然也라 天이 與賢則與賢하고 天이 與子則與子니라 昔者에 舜이 薦禹於天十有七年에 舜이 崩커시늘 三年之喪을 畢하고 禹避舜之子於陽城이러시니 天下之民이 從之를 若堯崩之後에 不從堯之子而從舜也하니라 禹薦益於天七年에 禹崩커시늘 三年之喪을 畢하고 益避禹之子於箕山之陰이러니 朝覲訟獄者 不之益而之啓曰 吾君之子也라하며 謳歌者不謳歌益 而謳歌啓曰 吾君之子也라하니라 丹朱之不肖에 舜之子亦不肖하며 舜之相堯와 禹之相舜也는 歷年이 多하여 施澤於民이 久하고 啓는 賢하여 能敬承繼禹之道하며 益之相禹也는 歷年이 少하여 施澤於民이 未久하니 舜禹益相去久遠과 其子之賢不肖皆天也라 非人之所能爲也니 莫之爲而爲者는 天也오 莫之致而至者는 命也니라 匹夫而有天下者는 德必若舜禹而又有天子薦之者니 故로 仲尼不有天下하시니라 (萬章上6)

<天道와 誠>

○是故로 誠者는 天之道也요 思誠者는 人之道也니라 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니 不誠이면 未有能動者也니라 (離婁上12)

<性과 命>

○孟子曰 口之於味也와 目之於色也와 耳之於聲也와 鼻之於臭也와 四肢於安逸也에 性也나 有命焉이라 君子不謂性也니라 仁之於父子也와 義之於君臣也와 禮之於賓主也와 智之於賢者也와 聖之於天道也에 命也나 有性焉이라 君子는 不謂命也니라 (盡心下24)

<天의 生民과 先覺者>

○詩曰 天生蒸民하시니 有物有則이로다 民之秉夷(彝)라 好是懿德이라하여늘 孔子曰 爲此詩者여 其知道乎인저 故로 有物이면 必有則이니 民之秉夷也故로 好是懿德이라하시니라 (告子上6)

○萬章問曰 人有言하되 伊尹이 以割烹要湯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曰 否라 不然하니라...湯三使往聘之하신대 旣而요 幡然改曰... 天之生此民也 是使先知로 覺後知하며 使先覺으로 覺後覺也시니 予는 天民之先覺者也로니 予將以斯道로 覺斯民也니 非予覺之요 而誰也리오하니라...吾는 聞其以堯舜之道로 要湯이요 未聞以割烹也로라 (萬章上7)

○孟子曰 舜은 發於畎畝之中하시고 傅說은 舉於版築之間하고 膠鬲은 舉於魚鹽之中하고 管夷吾는 舉於士하고 孫叔敖는 舉於海하고 百里奚는 舉於市하니라 故로 天將降大任於是人也신덴 必先苦其心志하며 勞其筋骨하며 餓其體膚하며 空乏其身하여 行拂亂其所爲하니니 所以動心忍性하여 曾益其所不能이니라 (告子下15)

<天位, 天職, 天祿, 天爵>

○萬章問曰 敢問友하노이다 孟子曰 不挾長하며 不挾貴하며 不挾兄弟而友니 友也者는 友其德也니 不可以有挾也니라...晉平公之於亥唐也에 入云 則入하고 坐云則坐하고 食云則食하여 雖蔬食菜羹이라도 未嘗不飽아니 蓋不敢不飽也라 然이나 終於此而已矣요 弗與共天位也하며 弗與治天職也하며 弗與食天祿也하니 士之尊賢者也라 非王公之尊賢也니라 (萬章下3)

○孟子曰 有天爵者하며 有人爵者하니 仁義忠信樂善不倦은 此天爵也요 公卿大夫는 此人爵也니라 古之人은 脩其天爵而人爵從之러니라 今之人은 脩其天爵하여 以要人爵하고 旣得人爵而棄其天爵하니니 則惑之甚者也라 終亦必亡而已矣니라 (告子上16)

<天의 內在와 人性의 보편성>

○孟子曰 萬物이 皆備於我니 反身而誠이면 樂莫大焉이요 強恕而行하면 求仁이 莫近焉이니라 (盡心上4)

○孟子曰 形色은 天性也니 惟聖人然後에 可以踐形이니라 (盡心上38)

○(孟子)曰 耳目之官은 不思而蔽於物하니니 物이 交物이면 則引之而已矣요 心之官則思라 思則得之하고 不思則不得也니 此天之所與我者라 先立乎其大者면 則其小者不能奪也니 此爲大人而已矣니라 (告子上15)

○孟子曰 富歲엔 子弟多賴하고 凶歲엔 子弟多暴하니니 非天之降才爾殊也라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니라...心之所同然者는 何也오 謂理也義也니... (告子上7)

○吾聞夷子是 墨者라하니 墨之治喪也는 以薄爲其道也라 夷子思以易天下 하나니 豈以爲非是而不貴也리오 然而夷子葬其親이 厚하니 則是以所賤事親也로다 徐子以告夷子한대 夷子曰 儒者之道에 古之人이 若保赤子라하니 此言은 何謂也오 之則以爲愛無差等이요 施由親始라하노라 徐子以告孟子한대 孟子曰 夫夷子是 信以爲人之親其兄之子 爲若親其隣之赤子乎아 彼有取爾也니 赤子匍匐將入井이 非赤子之罪也라 且天之生物也 使之一本이어늘 而夷子是 二本故也로다 (滕文公上5)

<天에 대한 신념>

○樂正子見孟子曰 克이 告於君하니 君이 爲來見也러시니 嬖人有臧倉者 沮君이라 君이 是以로 不果來也하시니이다 (孟子)曰 行或使之며 止或尼之나 行止는 非人의 所能也라 吾之不遇魯侯는 天也니 臧氏之子 焉能使予不遇哉리오 (梁惠王下16)

<順天과逆天>

○孟子曰 天下有道엔 小德이 役大德하며 小賢이 役大賢하고 天下無道엔 小役大하며 弱役强하나니 斯二者는 天也니 順天者는 存하고 逆天者는 亡하나니라…詩云 商之孫子 其麗不億이언마는 上帝既命이라 侯于周服이로다 侯服于周하니 天命靡常이라 殷士膚敏이 裸將于京이라하여늘 孔子曰 仁不可爲衆也니 夫國君이 好仁이면 天下無敵이라하시니라 (離婁上7)

○伊訓에 曰 天誅造攻을 自牧宮은 朕載自亳이라하니라 (萬章上7)

<知性과 事天>

○孟子曰 盡其心者는 知其性也니 知其性則知天矣니라 存其心하여 養其性은 所以事天也요 殀壽不貳하여 修身以俟之는 所以立命也니라 (盡心上1)

<知命과 正命>

○孟子曰 莫非命也나 順受其正이니라 是故로 知命者는 不立乎巖牆之下하나니라 盡其道而死者는 正命也요 桎梏死者는 非正命也니라 (盡心上2)

○詩云 永言配命이 自求多福이라하며 (書經)太甲에 曰 天作孽은 猶可違어니와 自作孽은 不可活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公孫丑上4)

○萬章이 問曰 或이 謂孔子於衛에 主癰疽하시고 於齊에 主侍人瘠環이라하니 有諸乎잇가 孟子曰 否라 不然也라 好事者 爲之也니라 於衛에

主顏讐由러시니 彌子之妻與子路之妻로 兄弟也라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하시면 衛卿을 可得也라하여늘 子路以告한대 孔子曰 有命이라하시니 孔子進以禮하시며 退以義하사 得之不得에 曰 有命이라시니 而主癰疽與侍人瘠環이시면 是는 無義無命也니라 (萬章上8)

<天民과 天吏>

○孟子曰 有事君人者하니 事是君則爲容悅者也니라 有安社稷臣者하니 以安社稷爲悅者也니라 有天民者하니 達可行於天下而後에 行之者也니라 有大人者하니 正己而物正者也니라 (盡心上19)

○信能行此五者則隣國之民이 仰之若父母矣리니 率其子弟하여 攻其父母는 自生民以來로 未有能濟者也니 如此則無賊於天下하리니 無賊於天下者는 天吏也니 然而不王者는 未之有也니라 (公孫丑上5)

<畏天과 樂天>

○齊宣王이 問曰 交隣國이 有道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惟仁者아 爲能以大事小하나니 是故로 湯이 事葛하시고 文王이 事昆夷하시니이다 惟智者아 爲能以小事大하나니 故로 太王이 事獯鬻하시고 句踐이 事吳하니이다 以大事小者는 樂天者也요 以小事大者는 畏天者也니 樂天者는 保天下하고 畏天者는 保其國이니이다 詩云 畏天之威하여 于時保之라하니이다... 書曰 天降下民하사 作之君 作之師하시어든 惟曰其助上帝라 寵之四方이시니 有罪無罪에 惟我在커니 天下曷敢有越厥志리오하니 一人衡行於天下어늘 武王恥之하시니 此는 武王之勇也니 而武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하시니이다 今王이 亦一怒而安天下之民하시면 民이 惟恐王之好不勇也리이다 (梁惠王下3)

<天地合德의 경지>

○孟子曰 霸者之民은 驩虞如也오 王者之民은 皞皞如也니라 殺之而不怨하며 利之而不庸이라 民日遷善而不知爲之者니라 夫君子는 所過者化하며 所存者神이라上下與天地同流하나니 豈曰小補之哉리오 (盡心上13)

제4장 맹자의 심성론과 성선설(性善說)

A. 성(性) · 선(善)의 개념과 공자와 순자의 성론

1. 성(性) · 선(善)의 개념

- (1) 성(性)의 개념: 기질지성(氣質之性)과 본연지성(本然之性)
- (2) 선(善)의 개념: 상대선(相對善)과 절대선(絕對善)
- (3) 선(善)과 악(惡)과 불선(不善)의 문제

2. 공자의 성(性)과 선(善)

- (1) 성(性)에 대한 언급
 - 예) 子貢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公冶長12)
 - 예) 子曰性相近也,習相遠也(論語,陽貨2)
- (2) 선(善)에 대한 언급
 - 예) 子曰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不善者而改之(論語,述而21)
 - 예) 子曰善人,吾不得而見之矣,得見有恒者,斯可矣(論語,述而25)

3. 순자(荀子)의 성악설(性惡說)

- (1) 순자사상의 특징: 객관적, 자연의 법칙 활용, 각각의 직분 강조
 - 예) 「明於天人之分,則可謂至人矣」(荀子,天論)
 - 예) 「能治天時地財而用之」(荀子,天論)
- (2) 성(性)의 개념: 기질지성
 - 예) 「性者,天之就也,不可學,不可事」(荀子,性惡)
 - 예) 「偽者,可學而能,可事而成之」(荀子,性惡)
- (3) 성악(性惡)의 근거
 - 예) 「生而有好利焉,順是故爭奪生,而辭讓亡焉…疾惡…殘賊生…忠信亡…耳目之欲…好聲色…淫亂生…禮義文理亡焉」(荀子,性惡)
- (3) 성선(性善)의 방법: 인간의 의지적 노력
 - 예) 「人之性惡,其善者,偽也」(荀子,性惡)
 - 예) 「凡所貴堯禹君子者,能化性,能起偽,偽起而生禮義」(荀子,性惡)
- (4) 학문의 목표와 방법: 성학(聖學), 기질변화. 스승의 교화(師法之化)
 - 예법(禮法) 강조
 - 예) 「塗之人,可以爲禹」(荀子,性惡)
 - 예) 「青取之於藍,而青於藍,冰水爲之,而寒於水」(荀子,勸學)
 - 예) 「禮義者 聖人之所生也」(荀子,性惡)
 - 예) 「學…始乎誦經,終乎讀禮,始乎爲士,終乎爲聖人」(荀子,勸學)

- 예) 「今人之性惡,必將待師法然後正,得禮義然後治」(荀子,性惡)
 예) 「人君者,隆禮尊賢而王」(荀子,彊國)
 예) 「法者 治之端也,君子者,法之原也」(荀子,王制)
 예) 「重法愛民」(荀子,王霸)

B. 『맹자(孟子)』 선독(選讀)

<性善의 근거와 四端說>

-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하니라 先王이 有不忍人之心하사 斯有不忍人之政矣시니 以不忍人之心으로 行不忍人之政이면 治天下는 可運於掌上이니라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는 今人이 乍見孺子將入於井하고 皆有怵惕惻隱之心하나니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며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며 非惡其聲而然也니라 由是觀之컨대 無惻隱之心이면 非人也며 無羞惡之心이면 非人也며 無辭讓之心이면 非人也며 無是非之心이면 非人也니라 惻隱之心은 仁之端也요 羞惡之心은 義之端也요 辭讓之心은 禮之端也요 是非之心은 智之端也니라 人之有是四端也는 猶其有四體也니 有是四端而自謂不能者는 自賊者也요 謂其君不能者는 賊其君者也니라 凡有四端於我者를 知皆擴而充之矣면 若火之始然하며 泉之始達이니 苟能充之면 足以保四海요 苟不充之면 不足以事父母니라 (公孫丑上6)

<善의 중요성>

- 孟子曰 以善服人者는 未有能服人者也니 以善養人然後에 能服天下하나니 天下不心服 而王者는 未之有也니라 (離婁下16)
- 孟子曰 鷄鳴而起하여 孳孳爲善者는 舜之徒也요 鷄鳴而起하여 孳孳爲利者는 跖之徒也니 欲知舜與跖之分인덴 無他라 利與善之間也니라 (盡心上25)

<告子와 孟자의 性>

- 告子曰 生之謂性이니라 孟子曰 生之謂性也는 猶白之謂白與아 曰 然하다 白羽之白也는 猶白雪之白이며 白雪之白이 猶白玉之白與아 曰 然하다 然則犬之性이 猶牛之性이며 牛之性이 猶人之性與아 (告子上3)
- 告子曰 食色이 性也니 仁은 內也라 非外也요 義는 外也라 非內也니라 孟子曰 何以謂仁內義外也오 曰 彼長而我長之라 非有長於我也니 猶彼

白而我白之라 從其白於外也라 故로 謂之外也라하노라 曰 異於白馬之白也는 無以異於白人之白也어니와 不識케라 長馬之長也가 無以異於長人之長與아 且謂長者義乎아 長之者義乎아 曰 吾弟則愛之하고 秦人之弟則不愛也하나니 是는 以我爲悅者也라 故로 謂之內요 長楚人之長하며 亦長吾之長하나니 是는 以長爲悅者也라 故로 謂之外也라하노라 曰 耆秦人之灸가 無以異於耆吾灸하니 夫物이 則亦有然者也니 然則耆灸도 亦有外與아 (告子上4)

○告子曰 性은 猶湍水也라 決諸東方則東流하고 決諸西方則西流하나니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는 猶水之無分於東西也니라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어니와 無分於上下乎아 人性之善也는 猶水之就下也니 人無有不善하며 水無有不下니라 今夫水를 搏而躍之면 可使過顙이며 激而行之면 可使在山어니와 是豈水之性哉리오 其勢則然也니 人之可使爲不善이 其性이 亦猶是也 (告子上2)

○告子曰 性은 猶杞柳也요 義는 猶柎捲也니 以人性爲仁義는 猶以杞柳爲柎捲이니라 孟子曰 子能順杞柳之性 而以爲柎捲乎아 將戕賊杞柳而後以爲柎捲也니 如將戕賊杞柳而以爲柎捲이면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아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는 必子之言夫인저 (告子上1)

<여러 性說과 情>

○公都子曰 告子曰 性은 無善無不善也라하고 或曰 性은 可以爲善이며 可以爲不善이니 是故로 文武興則民이 好善하고 幽厲興則民이 好暴라하고 或曰 有性善하며 有性不善하니 是故로 以堯爲君而有象하며 以瞽瞍爲父而有舜하며 以紂爲兄之子요 且以爲君이로되 而有微子啓 王子比干이라하나니 今曰 性善이라하시니 然則彼皆非與잇가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니 乃所謂善也니라 若夫爲不善은 非才其罪也니라 惻隱之心을 人皆有之하며 羞惡之心을 人皆有之하며 恭敬之心을 人皆有之하며 是非之心을 人皆有之하니 惻隱之心은 仁也요 羞惡之心은 義也요 恭敬之心은 禮也요 是非之心은 智也니 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라 我固有之也인마는 弗思耳矣라 故로 曰 求則得之하고 舍則失之라하니 或相倍蓰而無算者는 不能盡其才者也니라 詩曰 天生蒸民하시니 有物有則이로다 民之秉夷라 好是懿德이라하여늘 孔子曰 爲此詩者여 其知道乎인저 故로 有物이면 必有則이니 民之秉夷也故로 好是懿德이라하시니라 (告子上6)

<性과 故(順理)>

○孟子曰 天下之言性也 則故而已矣니 故者 以利爲本이니라 所惡於智者 爲其鑿也니 如智者 若禹之行水也면 則無惡於智矣리라 禹之行水也 是 行其所無事也시니 如智者亦行其所無事也면 則智亦大矣리라 (離婁下26)

<仁心>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이 有鷄犬이 放이면 則知求之호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告子上11)

<存心>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는 以其存心也니 君子는 以仁存心하며 以禮存心이니라(離婁下28)

<盡心>

○孟子曰 盡其心者는 知其性也니 知其性則知天矣니라 存其心하여 養其性은 所以事天也요 殫壽不貳하여 修身以俟之는 所以立命也니라(盡心上1)

<心之官과 大人>

○(公都子)曰 鈞是人也로되 或從其大體하며 或從其小體는 何也잇고 (孟子)曰 耳目之官은 不思而蔽於物하나니 物이 交物이면 則引之而已矣요 心之官則思라 思則得之하고 不思則不得也니 此天之所與我者라 先立乎其大者면 則其小者不能奪也니 此爲大人而已矣니라(告子上15)

<性善과 堯舜>

○滕文公이 爲世子에 將之楚할새 過宋而見孟子한대 孟子道性善하사되 言必稱堯舜이러시다 世子自楚反하여 復見孟子하신대 孟子曰 世子는 疑吾言乎잇가 夫道는 一而已矣니이다 成覿이 謂齊景公曰 彼丈夫也며 我丈夫也니 吾何畏彼哉리오하며 顔淵曰 舜何人也며 予何人也오 有爲者亦若是라하며 公明儀曰 文王은 我師也라하시니 周公이 豈欺我哉시리오하니이다 今滕을 絕長補短이면 將五十里也나 猶可以爲善國이니 書에 曰 若藥이 不瞑眩이면 厥疾이 不瘳라하니이다 (滕文公上1)

제5장 맹자의 수양론과 호연지기(浩然之氣)

A. 공자와 맹자의 수양론

1. 공자의 수양론

(1) 修己와 修德

예) 『子路問君子,子曰,修己以敬,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人,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百姓,修己以安百姓,堯舜其猶病諸』(論語,憲問45)

예) 『子曰,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是吾憂也』(論語,述而3)

(2) 志와 志士

예)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論語,爲政4)

예) 『子曰,志於道,據於德,依於仁,游於藝』(論語,述而6)

예) 『子曰,志士仁人,無求生而害仁,有殺身而成仁』(論語,衛靈公8)

(3) 直과 仁

예) 『子曰,人之生也直,罔之生也,幸而免』(論語,雍也17)

예) 『子曰,斯民也,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論語,衛靈公24)

예) 『子曰,直而無禮則絞』(論語,泰伯2)

예) 『葉公語孔子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孔子曰…父爲子隱,子爲父隱 直在其中矣』(論語,子路18)

(4) 知言과 知人

예) 『子曰,不知言,無以知人也』(論語,堯曰3)

예) 『樊遲問仁,子曰,愛人,問知,子曰,知人,樊遲未達』(論語,顏淵22)

(5) 義와 道

예) 『有子曰,信近於義,言可復也』(論語,學而13)

예) 『子曰,君子,義以爲質,禮以行之』(論語,衛靈公17)

예) 『見利思義,見危授命,久要,不忘平生之言,亦可以爲成人矣』(論語,憲問13)

예) 『子曰,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論語,里仁10)

예) 『子路曰,君子之仕也,行其義也,道之不行,已知之矣』(論語,微子7)

예) 『子曰,人能弘道,非道弘人』(論語,衛靈公28)

예) 『子曰,齊一變,至於魯,魯一變,至於道』(論語,雍也22)

예) 『子曰,君子道者三,我無能焉,仁者不憂,知者不惑,勇者不懼』(論語,憲問30)

예) 『子曰,朝聞道,夕死,可矣』(論語,里仁8)

예) 『子曰,道之將行也與,命也,道之將廢也與,命也』(論語,憲問38)

2. 맹자의 수양론과 호연지기

(1) 内外의 수양: 養志와 養氣

- (2) 中庸의 방법: 勿忘과 勿助長
- (3) 知行的 병행: 知言과 集義
- (4) 浩然之氣의 개념: 天地之氣(天地之理)
- (5) 養氣(養浩然之氣)의 내용: 集義(直, 義, 道)
- (6) 知言의 내용: 諛辭(蔽), 淫辭(陷), 邪辭(離), 遁辭(窮)
- (7) 기타의 수양론: 寡欲, 求放心
- (8) 수양론의 경지: 不動心

B. 『맹자(孟子)』 선독(選讀)

<浩然之氣章>

○公孫丑問曰 夫子 加齊之卿相하사 得行道焉하시면 雖由此霸王이라도 不異矣리니 如此則動心가 否乎잇가 孟子曰 否라 我는 四十이라 不動心 호라 曰 若是則夫子 過孟賁이 遠矣샤소이다 曰 是 不難하니 告子도 先我不動心하니라 曰 不動心이 有道乎잇가 曰 有하니라 北宮黝之養勇也 是 不膚撓하며 不日逃하여 思以一毫나 挫於人이어든 若撻之於市朝하여 不受於褐寬博하며 亦不受於萬乘之君하여 視刺萬乘之君호대 若刺褐夫하여 無嚴諸侯하여 惡聲이 至커든 必反之하니라 孟施舍之所養勇也 是 曰 視不勝호대 猶勝也로니 量敵而後進하며 慮勝而後會하면 是 是畏三軍者也니 舍 豈能爲必勝哉리오 能無懼而已矣라하니라 孟施舍는 似曾子하고 北宮黝는 似子夏하니 夫二子之勇이 未知其孰賢이어니와 然而孟施舍는 守約也니라 昔者에 曾子謂子襄曰 子 好勇乎아 吾嘗聞大勇於夫子矣로니 自反而不縮이면 雖褐寬博이라도 吾不慍焉이어니와 自反而縮이면 雖千萬人이라도 吾往矣라하시니라 孟施舍之守는 氣라 又不如曾子之守約也니라 曰 敢問夫子之不動心과 與告子之不動心을 可得聞與잇가 告子曰 不得於言이어든 勿求於心하며 不得於心이어든 勿求於氣라하니 不得於心이어든 勿求於氣는 可커니와 不得於言이어든 勿求於心은 不可하니 夫志는 氣之帥也오 氣는 體之充也니 夫志 至焉이요 氣 次焉이니 故로 曰 持其志오도 無暴其氣라하니라 旣曰 志 至焉이요 氣 次焉이라하시고 又曰 持其志오도 無暴其氣者는 何也잇고 曰 志壹則動氣하고 氣壹則動志也니 今夫蹶者趨者 是氣也而反動其心이니라 敢問夫子는 惡乎長이시니잇고 曰 我는 知言하며 我는 善養吾浩然之氣하노라 敢問何爲浩然之氣잇고 曰 難言也니라 其爲氣也 至大至剛하니 以直養而無害則塞於天地之間이니라 其爲氣也 配義與道하니 無是면 餒也니라 是集義所生者라 非義襲而取之也니 行有不慊於心則餒矣니 我故로 曰 告子 未嘗知義라하노니 以其外之也일세니라 必有事焉而勿正하여 心勿忘하며 勿助長也하여 無若宋人然이어다 宋人이 有閔其

苗之不長而掘之者러니 芒芒然歸하여 謂其人曰 今日에 病矣와라 予 助
 苗長矣와라하거늘 其子 趨而往視之하니 苗則槁矣러라 天下之不助苗
 長者 寡矣니 以爲無益而舍之者는 不耘苗者也요 助之長者는 掘苗者也니
 非徒無益이라 而又害之니라 何謂知言이니잇고 曰 諛辭에 知其所蔽하며
 淫辭에 知其所陷하며 邪辭에 知其所離하며 遁辭에 知其所窮이니 生於
 其心하여 害於其政하며 發於其政하여 害於其事하나니 聖人이 復起샤도
 必從吾言矣시리라 宰我子貢은 善爲說辭하고 冉牛閔子顏淵은 善言德行
 이러니 孔子兼之하사대 曰 我於辭命則不能也로라하시니 然則夫子는
 既聖矣乎신저 曰 惡라 是何言也오 昔者에 子貢이 問於孔子曰 夫子는
 聖矣乎신저 孔子曰 聖則吾不能이어니와 我學不厭而敎不倦也로라 子貢
 曰 學不厭은 智也요 敎不倦은 仁也니 仁且智하시니 夫子는 既聖矣신
 저하니 夫聖은 孔子도 不居하시니 是何言也오 昔者에 竊聞之호니 子
 夏子游子張은 皆有聖人之一體하고 冉牛閔子顏淵은 則具體而微라하니
 敢問所安하노이다 曰 姑舍是하라 曰 伯夷伊尹은 何如하니잇고 曰 不
 同道하니 非其君不事하며 非其民不使하여 治則進하고 亂則退는 伯夷
 也요 何事非君이며 何使非民이리오하여 治亦進하며 亂亦進은 伊尹也요
可以仕則仕하며 可以止則止하며 可以久則久하며 可以速則速은孔子也
시니 皆古聖人也라 吾未能有行焉이어니와 乃所願則學孔子也로라 伯夷
 伊尹이 於孔子에 若是班乎잇가 曰 否라 自有生民而來로 未有孔子也니라
 曰 然則有同與잇가 曰 有得百里之地而君之면 皆能以朝諸侯有天下어니
 와 行一不義하며 殺一不辜而得天下는 皆不爲也러니 是則同하니라 曰
 敢問其所以異하노이다 曰 宰我子貢有若은 智足以知聖人이니 汚不至阿
 其所好니라 宰我曰 以予觀於夫子컨대 賢於堯舜이 遠矣샤다 子貢曰 見
 其禮而知其政하며 聞其樂而知其德이니 由百世之後하여 等百世之王컨대
 莫之能違也니 自生民以來로 未有夫子也시니라 有若이 曰 豈惟民哉리오
 麒麟之於走獸와 鳳凰之於飛鳥와 太山之於丘垤과 河海之於行潦에 類也며
 聖人之於民에 亦類也시니 出於其類하며 拔乎其萃나 自生民以來로 未
 有盛乎孔子也시니라 (公孫丑上2)

<自暴自棄>

○孟子曰 自暴者는 不可與有言也요 自棄者는 不可與有爲也니 言非禮義를
 謂之自暴也요 吾身不能居仁由義를 謂之自棄也니라 仁은 人之安宅也요
 義는 人之正路也라 曠安宅而弗居하며 舍正路而不由하나니 哀哉라
 (離婁上10)

<寡欲>

○孟子曰 養心이 莫善於寡欲하니 其爲人也寡欲이면 雖有不存焉者라도 寡
矣요 其爲人也多欲이면 雖有存焉者라도 寡矣니라 (盡心下35)

<求放心>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나니 哀哉라 人이 有鷄犬이 放이면 則知求之호되 有放心而不知求하나니 學問之道는 無他라 求其放心而已矣니라 (告子上11)

<存心養性>

○孟子曰 盡其心者는 知其性也니 知其性則知天矣니라 存其心하여 養其性
은 所以事天也요 殀壽不貳하여 修身以俟之는 所以立命也니라 (盡心上1)

<親親,仁民,愛物>

○孟子曰 君子之於物也에 愛之而弗仁하고 於民也에 仁之而弗親하나니 親
親而仁民하며 仁民而愛物이니라 (盡心上45)

<自得>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는 欲其自得之也니 自得之則居之安하고 居之安
則資之深하고 資之深則取之左右에 逢其原이니 故로 君子欲其自得之也
니라 (離婁下14)

<三樂>

○孟子曰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이니라 父母俱存하며 兄弟無故가
一樂也요 仰不愧於天하며 俯不忤於人이 二樂也요 得天下英才而教育之
가 三樂也니 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이니라 (盡心上20)

제6장 맹자의 의(義)사상과 선비정신

A. 공자의 인(仁)과 순자의 예(禮)

1. 공자의 인(仁)과 군자(君子)

(1) 인(仁)의 개념과 내용: 사랑(愛人)과 전덕(全德)

예) 『仁,親也,從人二』(許慎,說文解字)

예) 『樊遲問仁,子曰,愛人』(論語,顏淵22)

예) 『仁者,人也,親親爲大』(中庸,第20章)

예) 『仁者,愛之理,心之德也』(論語,學而2,朱子註)

예) 『子貢問曰,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子曰,其恕乎』(論語,衛靈公23)

예) 『夫仁者,己欲立而立人,己欲達而達人』(論語,雍也28)

예) 『樊遲問仁,子曰,居處恭,執事敬,與人忠』(論語,子路19)

예) 『仲弓問仁,子曰,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於人』

(論語,顏淵2)

예) 『有子曰…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論語,學而2)

예) 『或曰,以德報怨,何如,子曰,何以報德,以直報怨,以德報德』(憲問36)

(2) 군자와 소인

예) 『君子,求諸己,小人,求諸人』(論語,衛靈公20)

예) 『君子,義以爲質,禮以行之,孫以出之』(論語,衛靈公15)

예) 『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論語,子路23)

예) 『君子,周而不比,小人,比而不周』(論語,爲政14)

예) 『君子,喻於義,小人,喻於利』(論語,雍也16)

예) 『君子,不器』(論語,爲政12)

예) 『質勝文則野,文勝質則史,文質彬彬然後,君子』(論語,,雍也16)

예) 『君子,坦蕩蕩,小人,長戚戚』(論語,述而36)

예) 『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論語,學而1)

예) 『不知命,無以爲君子』(論語,堯曰3)

2. 순자의 예(禮)와 성인(聖人)

(1) 예(禮)의 자의(字義)와 개념: 인간의식, 행동일체, 절도.

예) 『禮,道德之極,法之大分,類之綱紀』(荀子,)

예) 『禮者,人道之極也』(荀子,禮論篇)

예) 『禮義者,治人始也』(荀子,王制篇)

예) 『禮者,節之準也…禮以定倫』(荀子,治任篇)

예) 『人無禮則不生,事無禮則不成』(荀子,修身篇)

(2) 성학(聖學)과 성인(聖人)

예) 『學惡乎始, 惡乎終? 曰其數, 則始乎通經, 終乎讀禮』(荀子, 勸學篇)

예) 『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貴賤之等, 長幼之差, 智愚能不能之分 皆使人載其事, 而名得其宜, 然後使宜 祿多少厚薄之稱, 是夫群居和一之道也』
(荀子, 榮辱篇)

예) 『聖人者, 道之極也. 故學者, 固學爲聖人也, 非特學爲 無方之民也』
(荀子, 禮論篇)

B. 『맹자(孟子)』 선독(選讀)

<仁, 義, 禮, 道>

○孟子曰 仁也者는 人也니 合而言之하면 道也니라 (盡心下16)

○孔子曰 里仁이 爲美하니 擇不處仁이면 焉得智리오하시니 夫仁은 天之尊爵也며 人之安宅也어늘 莫之禦而不仁하니 是는 不智也니라 (公孫丑上7)

○孟子曰 仁은 人心也요 義는 人路也니라 舍其路而不由하며 放其心而不知求하니 哀哉라 (告子上 11)

○欲見賢人而不以其道면 猶欲其入而閉之門也니라 夫義는 路也요 禮는 門也니 惟君子能由是路하며 出入是門也라 (萬章下7)

○孟子曰 自暴者는 不可與有言也요 自棄者는 不可與有爲也니 言非禮義를 謂之自暴也요 吾身不能居仁由義를 謂之自棄也니라 仁은 人之安宅也요 義는 人之正路也라 曠安宅而弗居하며 舍正路而不由하나니 哀哉라 (離婁上10)

<인간의 成熟단계>

○浩生不害問曰 樂正子는 何人也잇고 孟子曰 善人也며 信人也니라 何謂善이며 何謂信잇고 曰 可欲之謂善이요 有諸已之謂信이요 充實之謂美요 充實而有光輝之謂大요 大而化之之謂聖이요 聖而不可知之之謂神이니 樂正子는 二之中이요 四之下也니라 (盡心下25)

<君자의 對人관계과 反省>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는 以其存心也니 君子는 以仁存心하며 以禮存心이니라 仁者는 愛人하고 有禮者는 敬人하나니 愛人者는 人恒愛之하고 敬人者는 人恒敬之니라 有人於此하니 其待我以橫逆이어든 則君子必自反也하여 我必不仁也며 必無禮也로다 此物이 奚宜至哉오하나니라 其自反而仁矣며 自反而有禮矣로되 其橫逆이 由是也어든 君子必自反也하여 我必不忠이로다하나니라 (離婁章句下28)

○孟子曰 愛人不親이어든 反其仁하고 治人不治어든 反其智하고 禮人不答이어든 反其敬이니라 行有不得者어든 皆反求諸己니 其身어든 正而天下歸之니라 (離婁章句上4)

<士와 仁義>

○曰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己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니 焉有仁人어든 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로 (梁惠王上7)

○王子墊이 問曰 士는 何事잇가 孟子曰 尙志니라 曰 何謂尙志니잇고 曰 仁義而已矣니 殺一無罪非仁也며 非其有而取之非義也라 居惡在오 仁是也요 路惡在오 義是也니 居仁由義면 大人之事備矣니라 (盡心上33)

○曰 尊德樂義 則可以囂囂矣니라 故로 士는 窮不失義하며 達不離道니라 窮不失義故로 士得己焉하고 達不離道故로 民不失望焉이니라 古之人어든 得志하얀 澤加於民하고 不得志하얀 修身見於世하니 窮則獨善其身하고 達則兼善天下니라 (盡心上9)

○人能充無受爾汝之實이면 無所往而不爲義也니라 士未可以言而言이면 是는 以言餽之也요 可以言而不言이면 是는 以不言餽之也니 是皆穿踰之類也 니라 (盡心下31)

<大人과 義>

○孟子曰 大人者는 不失其赤子之心者也니라 (離婁下12)

○孟子曰 大人者는 言不必信이며 行不必果요 惟義所在니라 (離婁下11)

<義와 利>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曰 叟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孟子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王曰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何以利吾身고하여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요 千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여는 不戢이니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梁惠王章句上1)

○孟子曰 鵷鳴而起하여 孳孳爲善者는 舜之徒也요 鵷鳴而起하여 孳孳爲利者는 跖之徒也니 欲知舜與跖之分인댄 無他라 利與善之間也니라 (盡心上 25)

○孟子曰 可以取며 可以無取에 取면 傷廉이요 可以與며 可以無與에 與면

傷惠요 可以死며 可以無死에 死면 傷勇이니라 (離婁下23)

- 孟子曰 魚도 我所欲也며 熊掌도 亦我所欲也언마는 二者를 不可得兼인덴
舍魚而取熊掌者也로라 生亦我所欲也며 義亦我所欲也언마는 二者를 不
可得兼인덴 舍生而取義者也로라 生亦我所欲언마는 所欲이 有甚於生者라
故로 不爲苟得也하며 死亦我所欲언마는 所惡有甚於死者라 故로 患有
所不避也니라 (告子上10)

<聖人觀>

- 孟子曰 伯夷는 聖之清者也요 伊尹은 聖之任者也요 柳下惠는 聖之和者也요 孔子는 聖之時者也시니라 孔子之謂集大成이시니 集大成也者는 金聲而玉振之也라 金聲也者는 始條理也요 玉振之也者는 終條理也니 始條理者 는 智之事也요 終條理者는 聖之事也니라 智를 譬則巧也요 聖을 譬則力也니 由射於百步之外也하니 其至는 爾力也어니와 其中은 非爾力也니라 (萬章下1)
- 曰 伯夷와 伊尹은 何如하니잇고 曰 不同道하니 非其君不事하며 非其民不使하여 治則進하고 亂則退는 伯夷也요 何事非君이며 何使非民이리오하여 治亦進하며 亂亦進은 伊尹也요 可以仕則仕하며 可以止則止하며 可以久則久하며 可以速則速은 孔子也시니 皆古聖人也라 吾未能有行焉이어니와 乃所願則學孔子也로라 伯夷와 伊尹이 於孔子에 若是班乎잇가 曰 否라 自有生民而來로 未有孔子也시니라 曰 然則有同與잇가 曰 有하니 得百里之地而君之 면 皆能以朝諸侯有天下어니와 行一不義하며 殺一不辜하여 而得天下는 皆不爲也리니 是則同하니라 (公孫丑上2)
- 孟子曰 堯舜은 性者也요 湯武는 反之也시니라 動容周旋이 中禮者는 盛德之至也니 哭死而哀가 非爲生者也며 經德不回가 非以干祿也며 言語必信이 非以正行也니라 君子는 行法하여 以俟命而已矣니라(盡心下33)
- 孔子曰 大哉라 堯之爲君也이여 惟天이 爲大어늘 惟堯則之하시니 蕩蕩乎民無能名焉이로다 君哉라 舜也여 巍巍乎有天下而不與焉이라하시니 堯舜之治天下 豈無所用心哉시리오마는 亦不用於耕耳시니라 (滕文公上4)
- 孟子曰 舜之飯糗茹草也에 若將終身焉이러시니 及其爲天子也하사는 被袵衣鼓琴하시며 二女果를 若固有之러시다 (盡心下6)
- 曹交問曰 人皆可以爲堯舜이라하니 有諸잇가 孟子曰 然하다 交는 聞文王은 十尺이요 湯은 九尺이라하니 今交는 九尺四寸以長이로되 食粟而已로니 何如則可니잇고 曰 奚有於是리오 亦爲之而已矣니라 有人於此 하니 力不能勝一匹雛면 則爲無力人矣요 今曰舉百鈞이면 則爲有力人矣니

然則舉烏獲之任이면 是亦爲烏獲而已矣니라 夫人은 豈以不勝爲患哉리오 弗爲耳니라 徐行後長者를 謂之弟요 疾行先長者를 謂之不弟니 夫徐行者는 豈人所不能哉리오 所不爲也니 堯舜之道는 孝弟而已矣니라 子服堯之服하며 誦堯之言하며 行堯之行이면 是堯而已矣요 子服桀之服하며 誦桀之言하며 行桀之行이면 是桀而已矣니라 (告子章句下2)

<楊朱와 墨翟 비판>

○孟子曰 楊子는 取爲我하니 拔一毛而利天下라도 不爲也하니라 墨子는 兼愛하니 摩頂放踵이라도 利天下인댄 爲之하니라 子莫은 執中하니 執中 이 爲近之나 執中無權이 猶執一也니라 所惡執一者는 爲其賊道也니 舉一而廢百也니라 (盡心上26)

○聖王이 不作하여 諸侯放恣하며 處士橫議하여 楊朱墨翟之言이 盈天下하여 天下之言이 不歸楊則歸墨하니 楊氏는 爲我하니 是는 無君也요 墨氏는 兼愛하니 是는 無父也니 無父無君은 是禽獸也니라 公明儀曰 庖有肥肉하며 廄有肥馬어든 民有飢色하며 野有餓殍면 此는 率獸而食人也라하니 楊墨之道不息하면 孔子之道不著하리니 是는 邪說이 誣民하여 充塞仁義也니 仁義充塞則率獸食人하다가 人將相食하리라 (滕文公下9)

<告子の 義外說 비판>

○告子曰 食色이 性也니 仁은 內也라 非外也요 義는 外也라 非內也니라 孟子曰 何以謂仁內義外也오 曰 彼長而我長之라 非有長於我也니 猶彼白而我白之라 從其白於外也라 故로 謂之外也라하노라 曰 異於白馬之白也는 無以異於白人之白也어니와 不識케라 長馬之長也가 無以異於長人之長與아 且謂長者義乎아 長之者義乎아 曰 吾弟則愛之하고 秦人之弟則不愛也하나니 是는 以我爲悅者也라 故로 謂之內요 長楚人之長하며 亦長吾之長하나니 是는 以長爲悅者也라 故로 謂之外也라하노라 曰 耆秦人之炙가 無以異於耆吾炙하니 夫物이 則亦有然者也니 然則耆炙도 亦有外與아 (告子上4)

제7장 맹자의 혁명론과 민본(民本)사상

A. 맹자 정치사상의 연원

1. 시경과 서경의 정치사상

(1) 天命

예) 『今天其命哲,命吉凶,命歷年』(書經,召誥)

예) 『維天之命,於穆不已』(詩經,維天之命)

예) 『天命,無常』(詩經,文王)

(2) 天과 君과 民

예) 『天降下民,作之君,作之師』(書經,泰誓)

예) 『帝德廣運,乃聖乃神乃武乃文,皇天眷命...爲天下君』(書經,大禹謨)

예) 『民受天地之中以生,所謂命也』(左傳,成公13)

예) 『天生蒸民,有物有則,民之秉夷(彝),好是懿德』(詩經,蒸民)

예) 『民惟邦本,本固邦寧』(書經,五子之歌)

예) 『民之所欲,天必從之』(書經,泰誓上)

예) 『天視自我民視,天聽自我民聽』(書經,泰誓中)

예) 『民心,無常』(書經,蔡仲之命)

예) 『民之所欲,天必從之』(書經,泰誓上)

(3) 君의 憂患意識

예) 『惟不敬厥德,乃早墜厥命』(書經,召誥)

예) 『兢兢業業』(書經,皋陶謨)

(4) 이상사회로서의 大同社會

예) 『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脩睦』(禮記,禮運)

2. 공자의 정치사상

(1) 정치적 理想

예) 『仲尼,祖述堯舜,憲章文武』(中庸,30章)

예) 『子路曰,願聞子之志,子曰,老者安之,朋友信之,少者懷之』(論語,公冶長)

예) 『修己以安百姓,堯舜,其猶病諸』(論語,憲問)

(2) 政治와 正名思想

예)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對曰,政者,正也』(論語,顏淵)

예) 『子路曰,衛君,待子而爲政,子將奚先,子曰,必也正名乎』(論語,子路)

예)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論語,顏淵)

(3) 德治와 신뢰

예) 『子曰,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論語,爲政)

예) 『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爲政)』

예)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論語,顏淵)

예)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子貢曰,必不得已而去,於斯三者,何先.曰去兵,…曰去食,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論語,顏淵)

(4) 지도자의 술선수범

예) 『子張問政,子曰,居之無倦,行之以忠』(論語,顏淵)

예) 『子路問政,子曰,先之勞之,請益,曰無倦』(論語,子路)

B. 『맹자(孟子)』 선독(選讀)

<국가의 구성과 民>

○孟子曰 諸侯之寶三이니 土地와 人民과 政事니 寶珠玉者는 殃必及身이니라(盡心章句下28)

<民本>

○孟子曰 民爲貴하고 社稷次之하고 君爲輕이니라 是故로 得乎丘民이 而爲天子요 得乎天子가 爲諸侯요 得乎諸侯가 爲大夫니라 諸侯危社稷이면 則變置하나니라 犧牲既成하며 粢盛既潔하여 祭祀以時로되 然而旱乾水溢이면 則變置社稷하나니라 (盡心章句下14)

<군주의 修養과 德治와 尊賢>

○孟子曰 人有恒言하되 皆曰天下國家라하나니 天下之本은 在國하고 國之本은 在家하고 家之本은 在身하니라 (離婁章句上5)

○孟子曰 人不足與適也며 政不足間也라 惟大人이아 爲能格君心之非니 君仁이면 莫不仁이요 君義면 莫不義요 君正이면 莫不正이니 一正君而國定矣니라 (離婁章句上20)

○孟子曰 以力假仁者는 霸니 霸必有大國이요 以德行仁者는 王이니 王不待大라 湯以七十里하시고 文王以百里하시니라 以力服人者는 非心服也라 力不贍也요 以德服人者는 中心悅而誠服也니 如七十子之服孔子也라 詩云 自西自東하며 自南自北이 無思不服이라하니 此之謂也니라 (公孫丑章句上3)

○孟子曰 知者無不知也나 當務之爲急이요 仁者無不愛也나 急親賢之爲務니 堯舜之知로 而不徧物은 急先務也요 堯舜之仁으로 不徧愛人은 急親賢也니라 不能三年之喪하고 而緦小功之察하며 放飯流歃하고 而問無齒決이 是之謂不知務니라 (盡心章句上46)

○孟子曰 不信仁賢이면 則國空虛하고 無禮義면 則上下亂하고 無政事면 則財用不足이니라 (盡心章句下12)

<人和의 중요성>

○孟子曰 天時不如地利요 地利不如人和니라 三里之城과 七里之郭을 環而攻之而不勝하나니 夫環而攻之에 必有得天時者矣언마는 然而不勝者는 是天時不如地利也니라 城非不高也며 池非不深也며 兵革이 非不堅利也며 米粟이 非不多也로되 委而去之하나니 是地利不如人和也니라 故로 曰 域民하되 不以封疆之界하며 固國하되 不以山谿之險하며 威天下하되 不以兵革之利니 得道者는 多助하고 失道者는 寡助라 寡助之至에는 親戚畔之하고 多助之至에는 天下順之니라 以天下之所順으로 攻親戚之所畔이라 故로 君子有不戰이언정 戰必勝矣니라 (公孫丑章句下1)

<큰 政治>

○子產이 聽鄉國之政할새 以其乘輿로 濟人於溱洧러니 孟子曰 惠而不知爲政이로다 歲十一月에 徒杠成하며 十二月에 輿梁成하면 民未病涉也니라 君子平其政이면 行辟人도 可也니 焉得人人而濟之리오 故로 爲政者 每人而悅之면 日亦不足矣리라 (離婁章句下2)

<民心과 教育>

○孟子曰 仁言이 不如仁聲之入人深也니라 善政이 不如善教之得民也니라 善政은 民畏之하고 善教는 民愛之하나니 善政은 得民材하고 善教는 得民心이니라 (盡心章句上14)

<輿論 정치>

○孟子見齊宣王曰 所謂故國者는 非謂有喬木之謂也라 有世臣之謂也니 王無親臣矣로소이다 昔者所進을 今日不知其亡也온여 王曰 吾何以識其不才而舍之리잇고 曰 國君이 進賢하되 如不得已니 將使卑踰尊하며 疏踰戚이니 可不愼與잇가 左右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며 諸大夫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며 國人皆曰賢然後에 察之하여 見賢焉然後에 用之하며 左右皆曰不可 라도 勿聽하며 諸大夫皆曰不可라도 勿聽하며 國人皆曰不可然後에 察之하여 見不可焉然後去之하며 左右皆曰可殺이라도 勿聽하며 諸大夫皆曰可殺이라도 勿聽하고 國人皆曰可殺然後에 察之하여 見可殺焉然後에 殺之니 故로 曰 國人殺之也라하니이다 如此然後에 可以爲民父母니이다 (梁惠王章句下7)

<與民同樂>

○莊暴見孟子曰 暴見於王하니 王語暴以好樂이어서늘 暴未有以對也하니 曰 好樂이 何如하니잇고 孟子曰 王之好樂이 甚하면 則齊國은 其庶幾

乎인저 他日에 見於王曰 王嘗語莊子以好樂이라하니 有諸잇가 王變乎色曰 寡人이 非能好先王之樂也라 直好世俗之樂耳로소이다 曰 王之好樂이 甚하면 則齊其庶幾乎인저 今之樂이 由古之樂也니이다 曰 可得聞與잇가 曰 獨樂樂과 與人樂樂이 孰樂이니잇고 曰 不若與人이니이다 曰 與少樂樂과 與衆樂樂이 孰樂이니잇고 曰 不若與衆이니이다 臣請爲王言樂하리이다 今王이 鼓樂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鐘鼓之聲과 管籥之音하고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鼓樂이여 夫何使我至於此極也하여 父子不相見하며 兄弟妻子離散고하며 今王이 田獵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車馬之音하며 見羽旄之美하고 舉疾首蹙頰而相告曰 吾王之好田獵이여 夫何使我至於此極也하여 父子不相見하며 兄弟妻子離散고하면 此는 無他라 不與民同樂也니이다 今王이 鼓樂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鐘鼓之聲과 管籥之音하고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庶幾無疾病與아 何以能鼓樂也오하며 今王이 田獵於此어시든 百姓이 聞王車馬之音하며 見羽旄之美하고 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 吾王이 庶幾無疾病與아 何以能田獵也오하면 此는 無他라 與民同樂也니이다 今王이 與百姓同樂하시면 則王矣시리이다 (梁惠王章句下1)

○齊宣王이 問曰 文王之囿 方七十里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曰 民猶以爲小也니이다 曰 寡人之囿는 方四十里로되 民猶以爲大는 何也잇고 曰 文王之囿는 方七十里에 芻蕘者往焉하며 雉兔者往焉하여 與民同之하시니 民以爲小 不亦宜乎잇가 臣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臣聞郊關之內에 有方四十里에 殺其麋鹿者를 如殺人之罪라하니 則是四十里로 爲阱於國中이니 民以爲大 不亦宜乎잇가 (梁惠王章句下2)

○齊宣王이 見孟子於雪宮이러니 王曰 賢者도 亦有此樂乎잇가 孟子對曰 有하니 人不得이면 則非其上矣니이다 不得而非其上者도 非也며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도 亦非也니이다 樂民之樂者는 民亦樂其樂하고 憂民之憂者는 民亦憂其憂하나니 樂以天下하며 憂以天下요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昔者에 齊景公이 問於晏子曰 吾欲觀於轉附朝舞하여 遵海而南하여 放于琅邪하노니 吾何修而可以比於先王觀也오 晏子對曰 善哉라 問也여 天子適諸侯曰巡狩니 巡狩者는 巡所守也요 諸侯朝於天子曰述職니 述職者는 述所職也니 無非事者요 春省耕而補不足하며 秋省斂而助不給하나니 夏諺曰 吾王不遊면 吾何以休며 吾王不豫면 吾何以助리오 一遊一豫가 爲諸侯度라하니이다 今也엔 不然하여 師行而糧食하여 飢者弗食하며 勞者弗息하며 脩眉胥譏하여 民乃作慝이어늘 方命虐民하여 飲食若流하여 流連荒亡하여 爲諸侯憂하나니이다 從流下而忘反을 謂之流요 從流上而忘反을 謂之連이요 從獸無厭을 謂之荒이요 樂

酒無厭을 謂之亡이니 先王은 無流連之樂과 荒亡之行하시니 惟君所行也니이다 景公說하여 大戒於國하고 出舍於郊하여 於是에 始興發하여 補不足하고 召大師曰 爲我하여 作君臣相說之樂하라하니 蓋徵招와 角招가 是也라 其詩曰 畜君何尤이로하니 畜君者는 好君也니이다 (梁惠王章句下4)

<仁政의 功效>

- 鄒與魯鬪이러니 穆公問曰 吾有司死者 三十三人이로되 而民은 莫之死也 하니 誅之則不可勝誅요 不誅則疾視其長上之死而不救하니 如之何則可也 잇고 孟子對曰 凶年饑歲에 君之民이 老弱은 轉乎溝壑하고 壯者는 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요 而君之倉廩實하며 府庫充이어늘 有司莫以告 하니 是는 上慢而殘下也라 曾子曰 戒之戒之하라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라하시니 夫民이 今而後에 得反之也로소니 君無尤焉하소서 君行仁政 하시면 斯民이 親其上하여 死其長矣리이다 (梁惠王章句下12)
- 梁惠王曰 晉國이 天下莫强焉은 叟之所知也라 乃寡人之身하여 東敗於齊에 長子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恥之하여 願比死者하여 一洒之하노니 如之何則可니잇고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王如施仁政於民하사 省刑罰하시며 薄稅斂하시면 深耕易耨하고 壯者以暇日로 修其孝悌忠信하여 入以事其父兄하며 出以事其長上하리니 可使制梃하여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彼奪其民時하여 使不得耕耨하여 以養其父母하면 父母凍餓하며 兄弟妻子離散하리니 彼陷溺其民이어든 王往而征之하시면 夫誰與王敵이리잇고 故曰 仁者無敵이라하니 王請勿疑하소서 (梁惠王章句上5)

<잘못된 정치의 책임>

- 孟子之平陸하사 謂其大夫曰 子之持戟之士가 一日而三失伍면 則去之아 否乎아 曰 不待三이니이다 然則子之失伍亦多矣로다 凶年饑歲에 子之民이 老羸는 轉於溝壑하고 壯者는 散而之四方者가 幾千人矣오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니이다 曰 今有受之牛羊而爲之牧之者면 則必爲之求牧與芻矣리니 求牧與芻而不得이면 則反諸其人乎아 抑亦立而視其死與아 曰 此則距心之罪也로소이다 他曰에 見於王曰 王之爲都者를 臣知五人焉이로니 知其罪者는 惟孔距心이러이다하시고 爲王誦之하신대 王曰 此則寡人之罪也로소이다 (公孫丑章句下4)
- 梁惠王曰 寡人이 願安承敎하노이다 孟子對曰 殺人以梃與刃이 有以異乎 잇가 曰 無以異也니이다 以刃與政이 有以異乎잇가 曰 無以異也니이다 曰 庖有肥肉하며 廄有肥馬요 民有飢色하며 野有餓莩면 此는 率獸而食

人也니이다 獸相食을 且人惡之하나니 爲民父母하여 行政하되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리잇고 仲尼曰 始作俑者는 其無後乎인저하시니 爲其象人而用之也시니 如之何其使其民飢而死也리잇고 (梁惠王章句上4)

○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이 如手足이면 則臣視君을 如腹心하고 君之視臣이 如犬馬면 則臣視君을 如國人하고 君之視臣이 如土芥면 則臣視君을 如寇讐니이다 王曰 禮에 爲君有服하니 何如라야 斯可爲服矣니잇고 曰 諫行言聽하여 膏澤이 下於民이요 有故而去어든 則君이 使人道之出疆하고 又先於其所往하며 去三年不反然後에 收其田里하나니 此之謂三有禮焉이니 如此則爲之服矣니이다 今也엔 爲臣하여 諫則不行하며 言則不聽하여 膏澤이 不下於民이요 有故而去어든 則君이 搏執之하고 又極之於其所往하며 去之日에 遂收其田里하나니 此之謂寇讐니 寇讐에 何服之有리잇고 (離婁章句下3)

<革命思想>

○齊宣王이 問卿한대 孟子曰 王은 何卿之間也시니잇고 王曰 卿不同乎잇가 曰 不同하니 有貴戚之卿하며 有異姓之卿하니이다 王曰 請問貴戚之卿하노이다 曰 君有大過則諫하고 反覆之而不聽이면 則易位니이다 王이 勃然變乎色한대 曰 王勿異也하소서 王問臣하실세 臣不敢不以正對호이다 王色定然後에 請問異姓之卿한대 曰 君有過則諫하고 反覆之而不聽이면 則去니이다 (萬章章句下9)

○齊宣王이 問曰 湯放桀하고 武王伐紂라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曰 臣弑其君이 可乎잇가 曰 賊仁者를 謂之賊이요 賊義者를 謂之殘이요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聞誅一夫紂矣요 未聞弑君也니이다 (梁惠王章句下8)

제8장 맹자의 향산(恒産)과 경제사상

A. 공자의 경제관(富)

(1) 정치에서 富의 강조

예) 『子適衛,冉有僕,子曰,庶矣哉,冉有曰,既庶矣,又何加焉,曰富之,曰既富矣,又何加焉,曰教之』(論語,子路9)

(2) 富와 天

예) 『子夏曰,商聞之矣,死生有命,富貴在天』(論語,顏淵5)

예) 『子曰,富而可求也,雖執鞭之士,吾亦爲之,如不可求,從吾所好』(述而11)

(3) 義 바탕의 富 추구

예) 『子曰,富與貴是人之所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論語,里仁5)

예) 『子曰,飯疏食飲水,曲肱而枕之,樂亦在其中矣,不義而富且貴,於我,如浮雲』(論語,述而15)

예) 『季氏富於周公,而求也爲之聚斂而附益之,子曰,非吾徒也,小子,鳴鼓而攻之,可也』(論語,先進16)

(4) 富와 好禮

예) 『子貢曰,貧而無諂,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論語,學而15)

예) 『子曰,貧而無怨,難,富而無驕,易』(論語,憲問11)

B. 『맹자(孟子)』 선독(選讀)

<周의 관직과 봉록 제도>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是 如之何잇고 孟子曰 其詳은 不可得而聞也로다 諸侯惡其害已也而皆去其籍이어나와 然而軻也嘗聞其略也로라 天子一位요 公이 一位요 侯一位요 伯이 一位요 子男이 同一位니 凡五等也라 君이 一位요 卿이 一位요 大夫一位요 上士一位요 中士一位요 下士一位니 凡六等이라 天子之制는 地方千里요 公侯는 皆方百里요 伯은 七十里요 子男은 五十里니 凡四等이라 不能五十里는 不達於天子하여 附於諸侯하나니 曰 附庸이리라 天子之卿은 受地視侯하고 大夫는 受地視伯하고 元士는 受地視子男이니라 大國은 地方百里니 君은 十卿祿이요 卿祿은 四大夫요 大夫는 倍上士요 上士는 倍中士요 中士는 倍下士요 下士與庶人在官者는 同祿하니 祿足以代其耕也니라 次國은 地方七十里니 君은 十卿祿이요 卿祿은 三大夫요 大夫는 倍上士요 上士는 倍中士요 中士는 倍下士요 下士與庶人在官者는 同祿하니 祿足以代其耕也니라 小國은 地方五十里니 君은 十卿祿이요 卿祿은 二大夫요 大夫는 倍

上士요 上士는 倍中士요 中士는 倍下士니 下士與庶人在官者는 同祿하
니 祿足以代其耕也니라 耕者之所獲은 一夫百畝니 百畝之糞에 上農夫
는 食九人하고 上次는 食八人하고 中은 食七人하고 中次는 食六人하
고 下는 食五人이니 庶人在官者其祿이 以是爲差니라 (萬章下2)

<財用의 충족>

○孟子曰 易其田疇하며 薄其稅斂이면 民可使富也니라 食之以時하며 用之
以禮면 財不可勝用也리라 民非水火면 不生活이로대 昏暮에 叩人之門
戶 하여 求水火어든 無弗與者는 至足矣일세니 聖人이 治天下에 使有
菽粟을 如水火니 菽粟이 如水火면 而民이 焉有不仁者乎리오 (盡心上23)

<왕도정치(仁政)와 10분1 세금>

○齊宣王이 問曰 人皆謂我毀明堂이라하니 毀諸잇가 已乎잇가 孟子對曰
夫明堂者는 王者之堂也니 王欲行王政이어시든 則勿毀之矣소서 王曰 王
政을 可得聞與잇가 對曰 昔者文王之治岐也에 耕者九一하며 仕者를 世
祿하며 關市를 譏而不征하며 澤梁을 無禁하며 罪人을 不孥하시니 老
而無妻曰鰥이요 老而無夫曰寡요 老而無子曰獨이요 幼而無父曰孤니 此
四者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어늘 文王이 發政施仁하시되 必先斯四者하
시니 詩云 哿矣富人이어니와 哀此癯獨이라하니이다 王曰 善哉라 言乎
여 曰 王如善之인댄 何爲不行이니잇고 王曰 寡人有疾하니 寡人은 好
貨하노이다 對曰 昔者에 公劉 好貨하시더니 詩云 乃積乃倉이어늘 乃
裹餼糧을 于橐于囊이요 思戢用光하여 弓矢斯張하며 干戈戚揚으로 爰
方啓行이라하니 故로 居者有積倉하며 行者有裹糧也然後에야 可以爰方
啓行이니 王如好貨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에 何有리잇고 王曰
寡人有疾하니 寡人은 好色하노이다 對曰 昔者에 大王이 好色하사 愛
厥妃하시더니 詩云 古公賁父 來朝走馬하사 率西水滸하여 至于岐下하여
爰及姜女로 聿來胥宇라하니 當是時也하여 內無怨女하며 外無曠夫하니
王如好色이어시든 與百姓同之하시면 於王에 何有리잇고 (梁惠王章句下5)

<왕도정치(仁政)와 井田제도>

○滕文公이 問爲國하신대 孟子曰 民事는 不可緩也니 詩云 晝爾于茅요 宵
爾索綯하여 亟其乘屋이오사 其始播百穀이라하니이다 民之爲道也 有恒
産者는 有恒心이요 無恒産者는 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乎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니 焉有仁人이 在
位하여罔民을 而可爲也리오 是故로 賢君이 必恭儉하여 禮下하며 取於
民이 有制 니이다 陽虎曰 爲富면 不仁也요 爲仁이면 不富矣라하니이다
夏后氏는 五十而貢하고 殷人은 七十而助하고 周人은 百畝而徹하니 其

實은 皆什一也니 徹者는 徹也요 助者는 藉也니라 龍子曰 治地는 莫善於助요 莫不善於貢이니 貢者는 校數歲之中하여 以爲常하나니 樂歲에 粒米狼戾하여 多取之而不爲虐이라도 則寡取之하고 凶年에 糞其田而不足이어늘 則必取盈焉하나니 爲民父母 使民으로 吟吟然將終歲勤動하여 不得以養其父母하고 又稱貸而益之하여 使老稚로 轉乎丘壑이면 惡在其爲民父母也리오 하나이다 夫世祿은 滕이 固行之矣니 하나이다 詩云 雨我公田하여 遂及我私라 하나니 惟助에 爲有公田 하나니 由此觀之컨대 雖周나 亦助也로 소이다 設爲庠序學校하여 以敎之 하나니 庠者는 養也요 校者는 敎也요 序者는 射也라 夏曰 校요 殷曰 序요 周曰 庠이요 學則三代共之 하나니 皆所以明人倫也라 人倫이 明於上이면 小民이 親於下 하나이다 有王者起면 必來取法하리니 是爲王者師也 하나이다 詩云 周雖舊邦이나 其命維新이라 하나니 文王之謂也니 子力行之하시면 亦以新子之國하시리이다 使畢戰로 問井地하신대 孟子曰 子之君이 將行仁政하여 選擇而使子하시니 子必勉之이다 夫仁政은 必自經界始니 經界不正이면 井地不均하며 穀祿이 不平하리니 是故로 暴君汚吏는 必慢其經界 하나니 經界旣正이면 分田制祿은 可坐而定也니라 夫滕이 壤地褊小 하나니 將爲君子焉이면 將爲野人焉이니 無君子면 莫治野人이요 無野人이면 莫養君子니라 請野에 九一而助하고 國中에 什一하여 使自賦하라 卿以下는 必有圭田 하나니 圭田은 五十畝니라 餘夫는 二十五畝니라 死徙에 無出鄉이니 鄉田同井이 出入에 相友하며 守望에 相助하며 疾病에 相扶持하면 則百姓이 親睦하리라 方里而井이니 井이 九百畝니 其中이 爲公田이라 八家皆私百畝하여 同養公田하여 公事를 畢然後에 敢治私事니 所以別野人也니 此其大略也니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니라 (滕文公上3)

<恒産과 仁政>

○曰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辟邪侈를 無不爲이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니 焉有仁人이 在位하여 罔民而可爲也리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대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妻子하여 樂歲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然後 하나니 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 輕 하나이다 今也에 制民之産하대 仰不足以事父母하며 俯不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苦하고 凶年에 不免於死亡 하나니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 奚暇에 治禮義哉리오 王欲行之則盍反其本矣니잇고 吾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吾士者可以衣帛矣며 鷄豚狗彘之畜을 無失其時면 七十者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리니 老者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요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하나이다 (梁惠王上7)

<왕도정치와 세금>

○孟子曰 尊賢使能하여 俊傑이 在位則天下之士 皆悅而願立於其朝矣리라
市에 塵而不征하며 法而不塵則天下之商이 皆悅而願藏於其市矣리라 關
에 譏而不征則天下之旅가 皆悅而願出於其路矣리라 耕者를 助而不稅則
天下之農이 皆悅而願耕於其野矣리라 塵無夫里之布則天下之民이 皆悅
而願爲之氓矣리라 信能行此五者則隣國之民이 仰之若父母矣리니 率其
子弟하여 攻其父母는 自生民以來로 未有能濟者也니 如此則無賊於天下
하리니 無賊於天下者는 天吏也니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라 (公孫丑上5)

<세금의 종류>

○孟子曰 有布縷之征과 粟米之征과 力役之征하니 君子用其一이요 緩其二
이니 用其二면 而民이 有殍하고 用其三이면 而父子離니라 (盡心下27)

<20분의 1의 세금>

○白圭曰 吾欲二十而取一하노니 何如하니잇고 孟子曰 子之道는 貉道也로다
萬室之國에 一人이 陶則可乎아 曰 不可하니 器不足用也니이다 曰 夫
貉은 五穀이 不生하고 惟黍生之하나니 無城郭宮室宗廟祭祀之禮하며
無諸侯幣帛饗飮하며 無百官有司라 故로 二十에 取一而足也니라 今에
居中國하여 去人倫하며 無君子면 如之何其可也리오 陶而寡라도 且不
可以爲國이온 況無君子乎아 欲輕之於堯舜之道者는 大貉에 小貉也요 欲
重之於堯舜之道者는 大桀에 小桀也니라 (告子下10)

<경제정책의 즉각 실시>

○戴盈之曰 什一과 去關市之征을 今茲未能이란대 請輕之하여 以待來年然
後에 已호대 何如하니잇고 孟子曰 今有人이 日攘其隣之鷄者어든 或이
告之曰 是非君子之道라한대 曰 請損之하여 月攘一鷄하야 以待來年然
後에 已로다 如知其非義인덴 斯速已矣니 何待來年이리오 (滕文公下8)

제9장 현대사회와 유교의 역할

1. 현대사회의 특징과 문제점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경과 지역을 넘어 인류가 하나가 되어 지구촌(地球村)을 이루고 있으며, 지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한 자리에 모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단적인 획일주의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인간의 심성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으며,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매몰되어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지나친 물질중심의 가치관에 의하여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부서지고 있으며, 가족마저도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나친 개인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내닫고 있으며, 물질만을 추구하는 가치의식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송두리째 내 버리고 있다.

요즈음에 이르러 현대사회는 정치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문화윤리 등의 기존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생명윤리의 문제,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제기된 정보통신의 윤리문제, 급속도로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가정과 가정윤리문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 교육문제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으면서 안정된 삶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도덕성과 성숙된 인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인간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과학과 경제가 발달되어도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중요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공존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지도자상의 정립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지도자인 선비들은 청빈과 검소, 지조와 신의, 선공후사(先公後私), 중의경리(重義輕利) 등의 선비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비판정신을 발휘하여 소금과 목탁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일찍이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국가 지도자인 목민관의 자세로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등을 강조하였다. 율기는 철저히 자신을 다스리고 수양함을 말하며, 봉공은 사심을 버리고 공심으로 사회에 봉사함을 말하며, 애민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함을 말한다. 지도자는 이와 같이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오직 공심을 갖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胡志明, 1890-1969)이 다산의 『목민심서』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이러한 지도자상을 몸소 실천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리더십은 과거의 ‘다스리는 리더십’에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의 새로운 지도자상은 군림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봉사의 자세로 친절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지도자를 말한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자로(子路)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정치 지도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로 ‘솔선수범(先之)’과 ‘수고를 다함(勞之)’을 강조함이 이를 말한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지도자들은 국민이 본받을 많은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다. 그런 모범과 헌신에서 곧 지도력이 나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기업에서는 유능한 개인에 초점을 두었다. 즉 마음보다는 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정보사회, 지식사회에서는 휴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정보와 지식이 인간관계의 결속으로 합쳐질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유능하면서 차가운 사람보다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으며, 함께 어울려 있는 사람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롭게 요구되는 세상이다.

3. 새로운 유교이념의 정립

오늘날 침체된 유교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유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유교이념의 창출(創出)이다. 과거 송대(宋代)의 신유학은 같은 동양문화권의 불교와 도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새로운 이론유교를 정립한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시대이므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포괄하여 새로운 인류문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2의 신유학이론이 정립되어야 할 역사적 분기점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나 그 남용을 저지할 지혜는 부족하고, 경제는 발전했으나 타인과 환경에 대한 배려가 없으며, 민주주의는 정착됐으나 윤리가 결여되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한스 쿡(Hans Kung, 1928-)은 다양한 가치와 생활방식, 행위의 규범, 언어의 놀이, 삶의 양식 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인간적인 통합에 대한 기본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지구윤리'를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억제하는 예전의 금욕주의가 아니라 어느 종교와 철학에서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것만을 지키자는 것으로서 '휴머니티'와 '상호성의 원칙' 위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점을 강조하였다.

현대사회에 알맞은 유교이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성과 연계되어 인류의 공존과 평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1세기에 맞이하는 위기적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21세기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이론을 가져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4. 유교의 역할과 미래방향

21세기는 세계인이 함께 살면서 통합과 관용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흔히들 인간과 인간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종교와 종교의 조화 등을 들기도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 자체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질고 착한 사람,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 능력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오늘날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유교의 이념 속에는 물질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순수한 도덕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높은 차원의 인격성이 담겨 있다. 또한 올바른 행위를 지향하는 품격 있는 예절의식이 있으며, 비리와 불의를 배척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강한 선비정신도 있다. 이러한 유교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촌의 인류가 인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의 삶은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성숙된 인간, 이러한 인격을 기반으로 하여 인류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자(孔子)의 인도(仁道)정신과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념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지향하는 유교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념이다. 이러한 유교의 이념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유교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유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용(中庸)의 철학이 있으므로 그동안의 역사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위기와 비판에 대응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교는 이러한 시중(時中)의 도를 구현하여 현대사회에 맞는 이론을 정립해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참고자료1)

『孟子』의 堯舜觀

1. 孟子의 堯舜 尊崇

- 1) 聖人: 離婁章句上2
- 2) 性善: 滕文公章句上1
- 3) 性之: 盡心章句上30, 盡心章句下33

2. 堯의 生涯와 德行

- 1) 生涯: 離婁章句下1
- 2) 好善: 公孫丑章句上8
- 3) 力行: 盡心章句上16
- 4) 結婚: 離婁章句上26, 萬章章句上2
- 5) 友愛: 萬章章句上2, 萬章章句上3
- 6) 孝道: 萬章章句上1, 離婁章句上28, 萬章章句上4, 盡心章句上35
- 7) 大智: 離婁章句下19
- 8) 安分: 盡心章句下6, 盡心章句上21

3. 堯舜의 道德

- 1) 憂患: 告子章句下15, 離婁章句下28
- 2) 勞心: 滕文公章句上4, 滕文公章句下9
- 3) 尊賢: 盡心章句上46, 萬章章句下3, 萬章章句下6
- 4) 讓位: 萬章章句上5, 萬章章句上6

4. 道統觀과 方向性

- 1) 道統觀: 盡心章句下38
- 2) 方向性: 告子章句下2, 盡心章句上25

(참고자료2)

『孟子』의 政治(經濟)思想

1. 국가의 구성과 民

- 1) 국가의 구성 : 盡心章句下 28
- 2) 民의 중요성 : 盡心章句下 14
- 3) 仁賢·禮義·政事의 중요성 : 盡心章句下 12

2. 군주의 수양과 덕치

- 1) 천하의 근본은 自身임 : 離婁章句上 5
- 2) 군주의 바른자세 : 離婁章句上 20
- 3) 性善에 대한 믿음 : 滕文公章句上 1
- 4) 善으로 복종시킴 : 離婁章句下 16
- 5) 王道와 德治 : 公孫丑章句上 3
- 6) 尊賢의 중요성 : 盡心章句上 46
- 7) 堯舜의 尊賢 : 萬章章句下 3

3. 民本정치

- 1) 善政과 民心 : 盡心章句上 14
- 2) 與民同樂 : 梁惠王章句下 1
- 3) 文王의 여민동락 : 梁惠王章句下 2
- 4) 好色·好財와 여민동락 : 梁惠王章句下 5
- 5) 巡狩와 여민동락 : 梁惠王章句下 4
- 6) 등용·출척과 民意 : 梁惠王章句下 7
- 7) 大德과 鄭子産의 小惠 : 離婁章句下 2
- 8) 桀紂와 민심이반 : 離婁章句上 9

4. 정치사상과 仁義

- 1) 仁義와 利益 : 梁惠王章句上 1
- 2) 義(善)와 利의 분기점 : 盡心章句上 25
- 3) 선비와 인의 : 盡心章句上 33
- 4) 인의예지의 보편성 : 公孫丑章句上 6
- 5) 浩然之氣와 養氣法 : 公孫丑章句上 2

6) 自暴自棄와 仁義 : 離婁章句上 10

7) 국가관계와 인의 : 梁惠王章句下 3

5. 仁政의 功效

1) 仁政과 悅服 : 梁惠王章句下 12

2) 仁者無敵 : 梁惠王章句上 5

3) 인정의 공효와 禍福 : 公孫丑章句上 4

4) 仁義로 利益 : 告子章句下 4

5) 人和의 중요성 : 公孫丑章句下 1

6. 仁政과 경제

1) 仁政의 恒産과 王道 : 梁惠王章句上 7

2) 왕도정치의 시작 : 梁惠王章句上 3

3) 세금의 종류 : 盡心章句下 27

4) 왕도정치와 세금 : 公孫丑章句上 5

5) 周의 관직제도 : 萬章章句下 2

6) 조세방법의 구체적 내용 : 滕文公章句上 3

7) 20분1의 세금 : 告子章句下 10

8) 10분1의 세금과 시행 : 滕文公章句下 8

9) 예의와 경제 : 盡心章句上 23

7. 혁명사상

1) 잘못된 정치의 책임 : 梁惠王章句下 6

2) 잘못된 정치와 책임감 : 公孫丑章句下 4

3) 食人정치 : 梁惠王章句上 4

4) 잘못된 군신관계 : 離婁章句下 3

5) 포악한 군왕과 一夫 : 梁惠王章句下 8

6) 易姓혁명 : 萬章章句下 9

8. 天命사상

1) 知命의 중요성 : 盡心章句上 2

2) 堯舜의 선양과 천명 : 萬章章句上 5

3) 禹의 계승과 천명 : 萬章章句上 6